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 아시아 로잔대회 일주일 앞으로

## 대회기간 중 특별 새벽기도회 · 나눔의 장 열린다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20개국의 교계지도자 120명이 참가하는 제5차 아시아로잔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로잔위원회(의장:이중윤 목사)와 서울교회 부설 기관인 KIMCHI의 주관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에는 젊은 아시아 미래지도자들을 발굴 격려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국 각 교단의 신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신학생들도 초청되며 동 기간 중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도 열리게 된다.

KIMCHI에서는 아시아 복음화를 기도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회 내 각 선교회 및 전도회와 참가국가와의 기도 결연운동을 전개하고 100명의 참가자들을 성도들의 집에 민박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개회 및 폐회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회에 찬양대를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민박지원 가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18일) 오후 3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실시된다.

한편, 8월 21일 라오스에서 5명이 입국하는 것을 시작하여 24, 25, 26일 사흘에 걸쳐 19개국의 참가자 100여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의견·안내분과는 17일(토)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공항영접, 등록 접수 및 안내, 새벽기도 및 방문처 안내 역할을 분담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고 기획,진행분과는 전체 행사점검을 위해 16일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점검을 완료했다. 한편, 민박분과는 국내 유학생들이 추가 되어 늘어남 수요일 데우기 위해 성도들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조기 입국자들의 민박을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시설분과는 7층에 100대의 간이 침대 설치를 위한 준비를 끝내고 6층 컴퓨터실에 12대의 인터넷을 연결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의 준비를 마쳤고 통역시설을 금주 중 설치할 예정이다. 봉사분과는 참가자들을 위한 식단 준비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회기간 중 전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자리 배치와 양식기 세트 등 시설을 점검 중에 있다. 홍보분과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8월 29일 아침에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재정분과는 대회 경비의 후원을 위한 헌금을 마감하고 예산을 수립했다.

아시아 로잔대회를 위한 금요기도회는 금주(8월23일)에도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 자원봉사요원들이 참석하여 실시된다.

또한 기간 중에 교회 지하 3층의 나눔의 집을 개장하여 본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게 됨에 따라 많은 의류를 비롯한 물품을 필요로 한다. 성도들의 가정에 안 입는 옷 등의 물건을 기증하여 나눔의 장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 흑인 영가단(Liberty Zion Choir) 공연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95년에 설립된 흑인영가단 Liberty Zion Choir 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순서를 갖는다.

흑인영가단은 지난 97년과 99년에 C.B.S의 초청을 받아 국내에서 세종문화회관과 대학교 등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한국의 영성회복을 책임지고 그 맡은 바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역량을 익히고 이를 미국에 있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접목시키고자 다시 방문하였다. 오늘 부를 곡은 "We shall overcome(우리는 극복하리라)", "Oh, Freedom(오 자유) 외 다수 곡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가를 기대한다.

## 주일 식당 배식 안내

### -9월 첫 주일부터 10시45분부터 시작-

교회는 현재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식당 배식에 따른 식당 봉사자들의 어려움과 체계적인 식당운영을 위해 오는 9월 첫 주일(9월1일)부터 배식시작 시간을 2부 예배를 시작한 후인 11시 30분으로 정하였다.

단 가브리엘 찬양대원을 위해 성경공부가 마친 후 10시 45분 부터 배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는 부서와 성도들은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 중 연령과 소속 교회학교에 알 맞는 부서에 가입해서 성경공부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금주의 성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시98:2)

Sing to the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and revealed his righteousness to the nations.

### † ALCOEV 참가국과 각 선교 · 전도회 연결 상황 †

선교회 · 전도회	참가국 · 인원	선교회 · 전도회	참가국 · 인원
빌립	싱가폴(1) · 미얀마(3)	도르가	파키스탄(5)
안드레	스리랑카(3)	루디아	방글라데시(5)
베드로	네덜(6)	뵈뵈	필리핀(7)
바울	미카오(4)	마리아	중국(3) · 홍콩(4)
엘리아	말레이시아(4)	에스터	라오스(5)
모세	인도네시아(3)	한나	일본(6)
아브라함	필리우(3)	사라	인도(8)
청년부	몽골(7)	대학부	태국(6)

### † ALCOEV 기간 찬양대 순서 †

날 짜	찬양대	시간
8월26일 개회예배	호산나 · 시온 (여성)연합찬양대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오후 7시
8월27일 새벽기도	가브리엘 찬양대	오전 5시 30분
8월28일 새벽기도	할렐루야 찬양대	오전 5시 30분
8월29일 새벽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오전 5시 30분
8월30일 폐회예배	베들레헴 찬양대	오후 7시

## 성경공부 장소변경

### -2부에배후 장년4부 801호 사용-

교회는 매 주일 마다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년4, 5부 성경공부가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서로 가까이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함에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 9월첫 주일부터 연령에 맞게 분반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장년5부 성도들이 성경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장년4부 성도들은 801호에서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이시이서 강해

#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

## (이사야 66장 5 - 9절)



이종운 목사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위선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와 대조적으로 경건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거나(5-6절), 시온은 갑자기 아들을 순산할 티인데 이것은 교회가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7-9절). 경건한 자들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10-14절).

### 1. 핍박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5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은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에도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요 16:2).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핍박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행위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들이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 2. 여호와와의 보옹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옹하시는 목소리이다"(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귀향민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소리로 진리가 회복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보옹하시는 목소리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노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핍박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옹하시는 심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편안하게 퍼질 것이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7절).

선지자는 시온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시온이 산고를 겪지 않고 남아를 해산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8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 민족은 뜻밖에 자유를 얻고 조국으로 돌아와 갑자기 흥왕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비유합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하므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핍박이 무섭게 있었고, 박해의 손이 짓눌렀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해방의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시온이 진통을 겪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열 달의 과정을 거치고야 아이를 출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산고를 겪지 않고 시온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달겠느냐 하시니라"(9절).

잉태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귀환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귀환길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간

사회의 제도 개혁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잉태된 아이가 반드시 출산하듯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편안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북한은 망할 일반 골라서 합니 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아직 통일할 준비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듯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8절).

하나님의 교회를 남자로 비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담대함을 가르치며(고후 16:13, 딤후 1:7), 민족으로 비유한 것은 많은 수의 신자를 의미합니다.

###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핍박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옹하시는 심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스스로 갚겠다고 해서 안됩니다.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중국 관리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원고를 제출했는데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된 설교를 했는데 통역하는 이가 원래 원고대로 준비된 통역을 하여 복음이 증거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가 제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어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 ALCOE V 참가국과 각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 · 각 선교 · 전도회 연결 상황(III)



**홍콩**  
**참석인원: 4명**  
**연결현황: 마리아 여전도회**  
 세계적 금융 산업 무역의 중심지로 오랜랫동안의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중국으로 반환된 후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인 97%로 대다수의 중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곳의 특성과 동일하게 중국 전래종교를 믿는 경향이 강하다. 개척교회 8.5% 성장률 3.9%로 기독교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매우 낮다.



**일본**  
**참석인원: 6명**  
**연결현황: 하나 여전도회**  
 세계 경제의 중심국 중의 하나이나 최근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후퇴로 심각한 기업 부도 및 고용 문제 등이 발생. 신도(다신주의, 조상숭배라고 불리는 전래종교)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척교회 1.13% 성장률 1.8%로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태국**  
**참석인원: 6명**  
**연결현황: 대환부**  
 불교국가로 농업과 관광이 경제의 중심인 군주제 국가.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불교가 9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개척교회는 0.43% 성장률 7%로 아직은 미약하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이 주를 이루는 술, 도박, 마약, 매춘 등에 중사하는 사람이 많아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기도제목>**  
 1.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증가되는 사회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2. 주민들이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도록  
 3. 현지 선교사들과 중국 본토 선교를 위해

**<기도제목>**  
 1. 일본국민이 신도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2. 일본국민이 세속적 타락에서 벗어나도록  
 3. 일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도제목>**  
 1.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  
 2. 바른 성경번역을 위해  
 3. 세속적 관심에서 국민들이 돌아서도록



**라오스**  
**참가인원: 5명**  
**연결현황: 에스더 여전도회**  
 태국, 베트남,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로 국토의 70%가 산림지대. 103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오타이 종족이 66.3%로 다수를 이룸. 농업이 경제의 중심. 집권 공산당은 교회를 계속하여 탄압하고 있어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매우 어렵다. 개척교회 1% 성장률 13.2%로 성장률이 매우 높다.



**인도**  
**참석인원: 8명**  
**연결현황: 사라 여전도회**  
 3,204,000km<sup>2</sup> 면적의 10억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국가. 신분을 제한하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고 수많은 인종 종교가 복잡적을 얽혀 끈임 없이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힌두교가 78%로 다수를 이루며 기독교는 영국인들의 식민지 시절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 기독교인은 대부분이 하층민(수드라 계층)이다. 개척교회 1.91% 성장률 3.4%로 낮다.



**몽골**  
**참가인원: 7명**  
**연결현황: 청년부**  
 1,565,000km<sup>2</sup> 면적의 유목민족 국가. 몽골인이 91.3%로 다수를 차지한다. 공산주의 통치의 영향으로 무신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믿어온 라마교를 믿고 있다.

**<기도제목>**  
 1.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산악의 주민들을 위해  
 2.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의 소멸을 위해  
 3. 높은 성장을 보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4.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한 라오스 난민들을 위해

**<기도제목>**  
 1. 상류계층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2. 신분을 없애는 카스트제도가 철폐되고 화합하도록  
 3.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4.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제목>**  
 1.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계속 보장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지하도록  
 2. 몽골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3. 몽골인들이 라마교에서 헤어날도록  
 4.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몽골 단기선교팀은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8일간의 몽골 단기 선교를 은혜중에 마치고 돌아왔다.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다. 심기는 자세로, 십자가 군사로, 일체 봉사하는 자세로, 철저히 질서구현에 행하라는 목사님의 당부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장도에 올랐다. 몽골에 대해 많이 탐구를 하고 준비했음에도 울란바타르(붉은영웅이란 뜻)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몽골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승무원들이 모두 몽골인들이지만 그들은 국제화된 일부 몽골인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주의 능하신 팔로 불들어 주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어떤 악의 세력도 다 파쇄하는 의의 병기로 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울란바타르 공항에 착륙했다. 우리와 동일한 의도의 공항 직원들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시골 국장 출입구 같은 공항입국장은 경제적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시내 곳곳에 승전기념탑, 높은 아치의 상징물 등 아직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들이 남아있었다. 이태준의사 기념공원과 시내의 거의 90%정도 누비고 있는 국산 자동차들, 곳곳에 걸려있는 한글 간판들은 몽골이 얼마나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날은 몽골에서 선교하는 전 교단이 신학생 양성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함(창15:16)

**푸른방, 푸른 복음의 나라 몽골**

**잘 다녀왔습니다!**

**이규정 목사(단기선교팀지도 목사)**

위해 함께 설립한 연합신학교를 방문했다.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모든일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몽골선교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것 같다. 셋째날부터 2박 3일간 아멘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의료, 이·미용봉사를 실시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설레게 한 것은 수련회를 진행한 수련장소이다. 비오 콤비나트라는 곳에 옛 러시아 군인들의 막사를 구입하여 임시로 건물 한 동을 내부수리만 하여 사용하는 곳인데, 5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대지와 그중에 대부분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서울교회 세계선교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설립 6년 정도된 교회지만 뜨거운 찬양에 성령의 불길이 느껴졌고, 대부분이 청년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만면에 흐르듯 미소를 지으며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지만 부족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어서 1박2일간의 개척7개월된 갈보리교회의 전교인 수련회 지원사역이 있었다. 기존 사역에다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이 더해져서 장래의 새싹들에게 확실하고 감동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이 두 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비교적 정착된 교회의 모습과 개척교회의 두 단면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선교 속제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선교사역 도중 잊을 수 없었던 모습중 하나는 통역사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 어과를 졸업하고 신학교인학을 했거나 입학지원자들이었는데 유창한 동시통역 실력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설교자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말씀을 통역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몽골선교의 큰 힘이 느껴졌다. 이들을 위해 기도과 물질적 지원이 많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한번 울려퍼졌던 우리 26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 주시어 은혜가운데 선교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담하고, 경험하고 받아온 속제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감으로 서울교회를 통해 몽골땅에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 한상은 목사님 기적을 찾아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204장)를 즐겨 찬양하시는 한상은 목사님은 농촌목회를 하시는 아버님의 대를 이어 목회사역의 길로 인도 받으셨다. 목사님 가정에서 2남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생활의 중심지는 시골이었고, 아직도 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는 본가는 경기도 농촌지역에 있다.

김하니 사모님과 슬하에 두 아들 세희(8), 민희(2)를 두고 계시며 아내와 두 아이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들 중 하나라고.



서울교회 부임 전후로 목사님은 교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는 면에서 발전이 있음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는데, 예전에는 총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하신다.

목회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기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후에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사님은 생각하신다.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바른 목회의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이다. 서울교회와 함께 하실 비전과 각오를 서울교회의 부목사로서 위임목사님의 목회방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부여된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도 같은 믿음에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

든 과정을 통해서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배우아 할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도 간절하시다.

목사님은 서울교회를 "아름다운교"의 교회라고 요약하셨다. 먼저 서울교회 교회당의 아름다운에 감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열심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교회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시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고. 또한 목사님의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구절로 지목하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처럼, 열심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더불어 온 마음으로 함께 구하고, 찾으며,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셨다고 한다. 현재 한목사님은 1,2교구, 청년부, 교육위원회를 맡고 계시는데, 부교역자로서의 맡은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사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성원을 부탁하셨다. 나소정(편집부)

### 서울교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임교래 목사(충남신학교 학장)

악천후 속에서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 서울교회 농촌전도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폭우를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는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목양교회 인태권 목사님은 평생 이 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레비를 사양하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시고 재정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불구자와 가난한 이웃에서 옷을 사주는 등 사랑의 실천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서울교회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웃 교회 교역자 여러분께 서울교회에서 농촌전도활동을 하니 와서 한방치료를 받고 이·미용 서비스도 좀 받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전도사님은 첫날 성도들이 침을 맞고 너무 효과가 좋아 더 많은 성도들이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고 머리하러 와서 식사도 하며 6시까

지 목양교회에 머물다 돌아오시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곳 지방신문의 기사는 침을 맞고 아픈던 허리가 썩은듯이 낫았다고 하시며 취재를 하셔서 이곳 지방신문에도 서울교회의 활동이 소개될 것입니다.

4일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질서 있게 축호전도, 봉사활동, 새벽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곳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183명을 이·미용 봉사로 아름답게 해주신 분들, 또 242명을 한방치로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에 수고하신 선생님과 무엇보다도 새는 지분을 보수해주시고 형광등을 교체해주시고 우리 신학교의 식당과 화장실의 전기를 보수해주신 집사님들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영정사진을 촬영해 주시고 시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주셔서 새 눈을 주신 것 같은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출발하면서까지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사랑은 더욱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회 농촌전도대 여러분의 사랑을 천국에 가셔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전도대를 파송하신 서울교회 당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 역사하시는 하나님

#### 곡산옥 권사(1교구 32다락방)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활동을 하게 된 곳은 충남예산의 목양교회와 그 일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침술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도착한 첫날, 앞이 안보이게 내리는 장대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 주민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 사용해주시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거듭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맞기신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다하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도활동 기간 중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며 전도를 다니신 장로님 집사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아마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에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목양교회도 더욱 많은 결실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병상에서

#### 최영란 권사(9교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요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글을 씁니다.

의사선생님이 첫마디가 "암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나의 입에서 "그래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분명 나에게 무슨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기도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나의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십 사일 동안의 날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층의 환자 5명이 병동을 지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였고 자리에

누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오늘과 내일을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할육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듯이 저 역시 이번의 고난에 부딪혀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검사결과 제 몸 속의 암세포는 작은 것 하나뿐더 이상 전이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입원부터 되원하는 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동행하심과 시간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서울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께, 저를 위해 특별 새벽기도를 해준 친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동정

■ 이종윤목사는 19일(월) 서울여대 이사회·성경신학회에 참여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박래원 집사·조봉환 권사 가정 (생신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